여성교육의 선구자 여메리

여메리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전해 내려오는 내용을 그대로 기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메리에 대한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필자도 차례대로 써서 세상에 남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여메리에 대해서 알려진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 입니다.

필자는 여메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메리의 조카인 필자의 아버지한테서 많이 들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기록물들을 읽어 본 후 궁금한 사항들을 부친께 물어보곤 하였습니다. 또한 필자가 중학교에 다닐 시절에는 여메리의 올케 되는 할머니 댁에서 사촌들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할머니를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는 저의 사촌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면서 여메리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 내용들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에 이 책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담아본 것입니다.

여메리의 초반기 사역과 후반기 사역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들이 남아있지만 대부분의 자료들이 한 두 가지 자료 원천을 참조하고 있으므로 자료들이 재차 활용될 때는 적지 않은 부분이 왜곡되게 마련입니다. 이에 필자는 가급적 원천 자료를 찾아보고 직접 확인했으며 또 관련되신 분들을 만나고 연관되는 장소를 찾아가며 하나라도 정보를 더 확실하게 얻어보려고 하였습니다.

그 동안 여메리에 관한 자료 수집에 협조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몇 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 책에 같이 포함시킴으로 그 고마움을 대신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여메리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믿음의 유산이 어떻게 전수되어 가고 있는가를 필자 가족은 물론 궁금해하실 독자들께도 참고로 이야기해 드리고자 함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부 잘 못 전해지고 있는 여메리에 대한 자료를 바로 잡는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필자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